

CULTURE NOTE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52722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15 (칠암동)
T. 1544-6711

Gyeongnam Culture & Art Center
52722 215, Gangnamro,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청렴한 당신이 문화예술을 아름답게 합니다.

근아오
미아기
즐거움 내일

공연·전시 일정

● 대공연장 ● 대공연장 로비 ●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3

March

SUN	MON	TUE
1	2	3
8	9	10
15	16	17
22 ● NEW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 3	23	24
29	30	31

WED	THU	FRI	SAT
4	5	6	7
11	12	13	14
18	19	20	21 ● NEW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 3
25 ● 문화가 있는 날	26 ● 연극 '여자만세2' ● 2020 아티스트 가든 展(~30일) ● 환타지가 시작하는 곳 (~31일)	27 ● 연극 '여자만세2'	28 ● 2020 '만9,900원의 행복' 유리상자 콘서트

4

April

SUN	MON	TUE
5 ● 어린이 뮤지컬 '흔한 남매'	6	7
12 ● 2020 국민가수 진성 효 콘서트	13	14
19	20	21
26 ● 진주 남강연등축제 행복나눔 대공연	27	28

WED	THU	FRI	SAT
1	2	3 ● 제71회 진주미술협회전 (~7일)	4 ● 어린이 뮤지컬 '흔한 남매'
8	9 ● 무건 서원표 작품전(~14일) ● 2020 설원목우회전(~13일)	10	11 ● 2020년 제22회 전국무용경연대회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6	17 ● 국립민속국악원 창극 '지리산' ● 2020 제23회 양·호남 미술교류전 '동서미술의 현재전'(~21일) ● 아름다운 만남전 단채전(~21일)	18
22 ● 진주시립교향악단 제83회 정기연주회	23	24 ● 국립합창단 베토벤 장엄 미사 ● 경상대학교 미술학과 일반 대학원 석사창구전(~28일)	25 ● 제9회 진주시민 합창 페스티벌
29 ● 문화가 있는 날	30 부처님 오신 날		

※ 문화노트에 게재된 모든 공연 · 전시 일정 및 프로그램은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26. - 3. 27.

목 19:30

금 19:30

대공연장

V 40,000

R 30,000

S 20,000

A 10,000

8세 이상

양희경

최지연

정아미

서송희

유영섭

연극 여자만세2

82년생 김지영이 있다면,
여기 65년생 '최서희'도 있다!
행복 찾아 떠나는 여자들의 이야기

연극 <여자만세2>는 2013년 한국희곡작가협회 희곡상을 수상한 <여자만세1>에 이은 시리즈다. 2018년 대학로에서 초연되었고, 당시에 통쾌함과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여자만세2>는 원작인 <여자만세1>의 등장인물을 보다 심도 있게 풀어내고 있다. 순종적이지만 아무진 며느리 '최서희', 고지식한 시어머니 '홍마님', 자유분방하고 자기주장 분명한 하숙생 '이여자', 자존감을 잃지 않기 위해 버둥거리는 30대 배우 '홍미남', 시어머니·며느리·손녀를 잇는 여성 삼대가 사는 잔잔한 연못에 70세 할머니 하숙생이 돌맹이를 던져 파장을 만든다. 불편한 동거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차별과 희생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각자의 입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힘든 삶의 여정에서 찾게 되는 가족과 사랑의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여자만세2>는 '여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여성들과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사실 여성뿐 아니라 모든 관객에게 큰 울림과 고민을 던지게 하는 부족함이 없다.

지고지순 며느리 ‘최서희’와 공주병 시어머니 ‘홍마님’을 만나다!



최지연



정아미

경남도민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최지연 안녕하세요, 배우 최지연입니다. 서울에서 천리 길, 논개의 고장 진주에서 연극 〈여자만세2〉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몇 해 전, 여행으로 축석루와 남강을 보고, 육전도 먹고 간 기억이 있는데요, 공연으로 직접 경남도민 여러분을 만난다니, 제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아미 안녕하세요, 배우 정아미입니다. 경남도민 여러분들을 3월 극장에서 뵙게 되다니, 가슴이 설렙니다.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연극 〈여자만세2〉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최지연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여주인공 이름을 딴 ‘최서희’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지만 아무진 살림꾼입니다. 그 이름을 지어준 친엄마와는 7살에 헤어져, 새엄마와 이복동생들 수발되며 힘들게 살아왔죠. 이른 결혼을 했으나, 또 일찌감치 혼자가 돼 딸 하나를 키우며, 한복과 누비제품을 만들고 하숙도 치며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요즘시대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싶을 정도죠. 아들 못 낳은 죄로 시어머니에게 구박도 받아가며 함께 살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기에 시댁 식구들과 하숙생들조차도 함께 품어가며 살아가는 정 많은 여자입니다.

정아미 한복 자태가 우아해서 마님으로 불리는 홍가네 안방마님 ‘홍마님’은 객관적으로 보면 간 큰 시어머니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대놓고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홍마님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홍마님 역시 연민이 느껴지는 캐릭터입니다. 남편 죽고, 큰아들마저 앞서 보낸 후, 작은 아들네에서도 정착할 수 없는, 그래서 홀며느리 집에 얹혀살기 위해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죠. 물론 작품 속에서 홍마님의 역할은 관련 인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악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이며, 소외된 불안한 노년의 삶을 보여주는 연민의 대상이자, 위기의 여자로 해석될 수 있어요.

최지연 배우님은 이 역할을 하면서 꼭 떠오르는 분이 있다고요?

최지연 평생을 엄마 소리를 못해보고 살아온 ‘최서희’ 역을 하면서, 실제 저의 친정 엄마 이야기가 참 많이 떠올라 가슴 먹먹했어요. 저의 친정엄마도 아주 어릴 때 친엄마를 여의고, 새엄마 밑에서 자랐거든요. 엄마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 결혼을 했으나, 첫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저의 할머니한테 호된 시집살이를 하며 사셨단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학교에서 카네이션 만드는 날이 오면 제일 싫었다고 하셨어요. 달아드릴 엄마가 안계셔서 만든 종이꽃을 들고 이불 속에서 누가 들을까 싶어 ‘엄마, 엄마...’ 몰래 불러봤단 이야기가 이 역할을 하면서 자주 생각이 났어요. 개인적으로 이 작품 섭외가 들어왔을 때, 선뜻 결정한 이유로 ‘엄마가 보러 오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에 결정하게 되었죠.

실제 최지연 배우님의 친정어머니가 쓰시던 재봉틀을 무대에서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최지연 저한테 아주 익숙한 물건이죠. 실제로 저도 그 재봉틀을 사용했었고요. 친숙하기도 하고, 엄마의 손때가 묻은 물건이 무대 위에 있으니 기분이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이 작품에서 저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정아미님은 〈여자만세1〉에 이어 〈여자만세2〉에도 함께 하시는데요, 함께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정아미 연습실에서 항상 웃음이 뽕뽕 터질 만큼 즐겁게 연습했어요. 휴먼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죠. 특히, 양희경 선배님과 성병숙 선배님 등 여러 배우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재출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캐릭터에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극은 드라마·영화와는 다르게 관객들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한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정아미 맞습니다. 소통의 사정거리가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매 공연마다 다른 분위기에 새로운 세계를 여는 듯합니다. 무대에서 연기 할 때 객석의 반응이 늘 같은 듯 다르거든요. 매회 객석으로부터 욕을 먹지만, 그 반응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 반응을 다른 관객과 같이 공유 한다는 것이 공연예술 및 연극이 갖는 매력인 것 같아요.

이 공연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최지연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에 흔하게 깔려 있던 정서니까요. 젊은 분들은 ‘요즘 누가 저렇게 살아? 옛날 얘기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 옆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저희 엄마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서울 공연에서는 갈수록 남자분들과 젊은 관객 분들이 많이 관람을 하셨어요. 물론 친정엄마나 시어머니와 함께 삼대가 같이 본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최지연 〈호신술〉, 〈전화벨이 울린다〉, 〈고발자들〉, 〈미디어〉, 〈환도열차〉 외 다수 작품 출연

정아미 〈이구나〉, 〈집나간 아빠〉, 〈차이카〉, 〈우리동네 읍분씨〉, 〈원맨쇼〉 외 다수 작품 출연

* 본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17.

금 19:30

대공연장

V 20,000

R 15,000

S 10,000

A 5,000

8세 이상

국립민속국악원 창극 지리산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품에 간직한 어머니의 산,
지리산이 전하는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

해방 전후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지리산! 그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는 창극 <지리산>이 경남도민을 찾는다. 지리산은 두류산, 방장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민족의 영산이며,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오롯이 간직한 산이다. 유구한 민족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복잡한 근·현대 100년의 역사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산이기에, 그 의미는 남다르다.

시놉시스

와운은 가난과 절제를 미덕으로 알고 사는 지리산 속의 오래된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언제나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천년할매, 즉 노고의 현신인 천년송이 있다. 와운의 사람들은 언제나 작은 근심도 바람도 노고할매와 함께한다. 마을 공동체의 일상은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며 풍성하다. 마을의 총각 길상과 처녀 반야는 사랑의 감정을 싹틔우고 점점 무르익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와운 마을에 열강 제국주의 발길이 침략한다. 결국, 길상은 징집으로, 반야는 위안부로 끌려가고 만다. 해방이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마을로 돌아온 길상과 반야. 반야의 몸속에 자신도 모르는 생명의 씨가 있었다. 반야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만, 길상의 발견으로 인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둘은 백년가약을 맺는다. 그리고 예쁜 딸 아이 지아를 출산한다. 해방 후, 산속 와운은 흥흥하다. 시간은 흘러, 낮에는 토벌대의 세상이, 밤에는 빨치산의 세상이 된다. 토벌을 위한 마을주민의 소개령이 내려진다. 길상은 산속에 남을 것을 선택하고, 반야와 딸 지아를 내려 보내려 하는데...

창극은 소리꾼의 가창에 의해서 완성되는 공연예술

작곡가 황호준

작년 8월에 초연된 창극 <지리산>. 저는 <지리산>의 작곡에 착수하기 직전,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지리산 와운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 있는 천년송을 대면한 최초의 순간은 낮게 드리운 짙은 계면의 가락이 온 몸을 휘감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으나, 잠시 후 구름이 산자락을 휘감고 그 사이로 솟아난 소나무의 자태는 곳곳한 우조의 가락을 뿜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 곳에 머무는 동안 눈앞에 펼쳐진 다채로운 풍경들은 다양한 이야기와 정서를 느끼게 해 주었고, 계면과 우조가 조화를 이루며 수많은 가락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창극 <지리산>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지리산을 답사하면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지리산 곳곳의 지명으로 명명된 구름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생하게 그려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천년송만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을 때 떠올랐던 계면가락과 계곡을 타고 흐르는 구름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통해 떠올랐던 우조가락의 조화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노고할매의 계면구름과 정령치할배의 우조구름으로 대비 시켜서 마치 환상과 현실의 대비처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프롤로그부터 구름골의 일상을 그려낸 1장에서는 '지리산'이라는 공간의 느낌을 구현했습니다.



창극 <지리산>은 해방 전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면서 지리산 자락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무대 공연 예술 작품에서 다루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저 역시 사건에 집중하는 직접적인 프로파간다(propaganda)의 방식에서부터 추상적 언어와 이미지로 풀어간 현대음악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식과 완전히 다른 결의 작품들을 작업해왔습니다. 창극 <지리산>은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의 흐름과 극적 정서의 흐름에 대한 치밀하고 논리적인 계산을 통해 먼저 스케치한 음악들을 장면에 맞게 배치하고 나서 개별 곡들을 작곡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모든 음악과 장면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브릿지 음악과 배경음악조차도 극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장과 변주의 일환으로 작곡하여 배치했습니다. 그 만큼 밸런스 유지를 위해 전체 음악과 음향을 치밀하게 안내 하였습니다.

작곡하는 내내 극중 여주인공인 반야와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반야가 겪었을 일들과 슬픔, 절망, 그리고 희망까지 모든 감정을 함께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 이후로는 반야가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들을 음악에 반영했습니다. 극중 노고할매의 말처럼 매년 지리산 세석 자갈밭에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철쭉이 그토록 붉은 이유는 수많은 이들이 지리산 자락에 피를 흘려주겠지요. 이 작품을 마치고 나서야 눈을 감고, 고요한 마음으로 떠올린 지리산이 왜 그리도 짝하고 처연하게 다가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에 포함된 대부분의 가창이 촘촘한 감정선을 유지하며 불러야 했기 때문에 연습 과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작품에 출연하는 국립민속국악원의 단원 선생님들 모두가 놀라운 집중력으로 작품에 몰입해 주셨고, 우리 전통 가창의 서사성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창극은 소리꾼의 가창에 의해 완성되는 공연예술이라는 사실을 재차 실감했습니다.

4월 17일 창극 <지리산>이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본과 음악의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4. 24.

금 19:30

대공연장

V 40,000

R 30,000

S 20,000

A 10,000

8세 이상

지휘 윤의중

국립합창단

시흥시립합창단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유성녀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강훈

베이스 최중우

국립합창단 베토벤 장엄 미사 -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게 하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소중한 울림! 베토벤이 남긴 최고의 작품을 만나다. 4월 24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베토벤 장엄 미사〉 공연이 열린다. 이날에는 국립합창단과 시흥시립합창단,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유성녀,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강훈, 베이스 최중우가 함께 한다. 이들이 선보이는 〈베토벤 장엄 미사〉는 1823년에 작곡되었으며, 1824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되었고, 1827년 출판되어

베토벤의 후원자였던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되었다. 1812년 청력을 완전히 잃은 베토벤은 경제적 문제 등 어려운 상황이 겹치며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으나, 1818년 건강이 호전되면서, 장엄 미사곡의 첫 뼈대를 만들었다. 이후, 5년의 고된 작업 끝에 1823년 52세 되던 해에 이 곡을 완성했다. 〈베토벤 장엄 미사〉는 사제가 정식으로 부제와 복사를 거느리고 행해지는 성대한 미사이다. 너무도 고뇌가 많은 인생을 살아온 베토벤이 장엄 미사를 자신의 작품 중

최고라고 할 만큼, 이 작품은 종교 음악의 대표적 명작이다. 윤의중 예술감독이 이끌고 있는 국립합창단은 1973년 창단된 전문합창단으로, 우리나라의 합창 수준을 아마추어에서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 올리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합창대국을 만드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세계 유수합창단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의 세계무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이번에 함께 하는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경제와 문화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는 한국경제신문의 새로운 시도로서 2015년 창단되었으며, 동년 11월 4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연주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예술적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넘치는 젊은 연주자로 구성된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의 자유로운 열정을 장려하며, 다양하고도 유연한 활동을 통해 청중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제공하고 있다.

뮤지컬 <팬레터> Musical Fanletter

6. 5. - 6. 6.

금 19:30
토 14:00, 19:00

대공연장

V 80,000
R 60,000
S 50,000
A 40,000

14세 이상

1930년대 자유를 억압하던 일제강점기 시절, 당대 최고 문인들의 일화를 바탕으로 문인들의 예술과 사랑을 그린 뮤지컬 <팬레터>가 경상남도문화예술 회관을 찾아온다. 그 시대 예술가들의 치열한 삶과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천재 소설가 김해진과 그를 동경하는 소설가 지망생 정세훈, 비밀에 싸인 천재 여류작가 히카루 등 세 인물을 주축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이다. 뮤지컬 <팬레터>는 역사적 사실과 상상을 더해 만들어진 모던 팩션 (Faction) 뮤지컬로 실존 인물인 이상과 김유정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와 함께, 순수문학단체 구인회를 모델로 한 문인들의 모임 '칠인회' 이윤, 이태준, 김수남, 김한태를 등장시켜 모던했던 당대 시대 분위기와 예술적 감성을 완벽히 표현하며 극의 재미와 긴장을 더한다. 칠인회가 머무르는 명일일보 신문사를 주축으로 꾸려진 무대는 2층으로 분리하여 인물들의 동선을 다양하게 할과 동시에, 독립적인 공간을 선사해 공간감을 배가시켰다. 또한, 세밀하면 서도 섬세한 조명 활용으로 각 캐릭터들의 심리 상태를 깊이 있게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무대 위 비춰지는 원고지 조명과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림자를 통한 연출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30.

화 19:30

대공연장

V 50,000

R 40,000

S 30,000

A 20,000

8세 이상

세븐 핑거스 여행자

한 편의 완벽한 서커스 드라마

여기 한 기차역이 있다. 누군가의 출발과 도착이 공존하는 곳, 작별과 환영의 인사가 교차하는 곳.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미래가 머무는 곳. 이곳에서 각자 다른 배경과 이야기를 가진 8명의 여행자들은 같은 곳을 향하는 기차에 탑승한다.

덴마크 리퍼블리크 씨어터와 공동 제작한 <보스 드림즈>로 2018년 아트 서커스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 세븐 핑거스가 최신작 <여행자>로 돌아온다. 태양의 서커스 출신 아티스트 7명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컨템포러리 서커스 그룹 세븐 핑거스는 2002년 창립 이래 2013년 미국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 수상, 3번의 올림픽 공연으로 이미 전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이번에 내한하는 <여행자>는 2018년 캐나다 아트 마켓 시나르(CINARS)에서 극찬을 받은 최고 화제작으로, 기차역을 테마로 한 감성적인 드라마와 세븐 핑거스의 뛰어난 서커스 기술이 유기적으로 엮인 수작이다. 서커스 기술 중심의 에피소드식 구성을 뛰어넘어 음악, 안무, 연기, 기술의 절묘한 조합을 선보이는 이 작품은 한 편의 완벽한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특히 이번 작품은 세븐 핑거스의 창립자이자, 서커스 분야 최고 경연 무대인 프랑스 몬디알 페스티벌에서 4번이나 금메달을 수상한 안무가 샤나 캐롤(Shana Carol)이 안무·연출을 맡아, 세븐 핑거스의 명성과 실력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캐나다, 러시아, 유럽을 넘나들며 쉬지 않고 달리는 <여행자>의 월드 투어행 기차는 2020년 6월, 드디어 경남에 정착한다. 기차역에 대한 향수와 여행의 설렘이 가득한 이 기차를 절대 놓치지 말자!

“회오리 바람을 연상시키 듯 서커스 기술, 음악, 영상의 완벽한 결합을 보여준다.”

- Le Devoir, Canada

3월 문화가 있는 날 바로크에서 로맨틱까지



3. 25.

수 19:30

대공연장 로비
사전예약에 의한 무료관람
전체관람

3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이상 챔버 오케스트라(음악감독 한정훈)가 바로크에서 로맨틱까지 클래식 향연의 선보인다. 이상 챔버 오케스트라는 2016년 개개인의 음악에 대한 이상의 실현과 그 결과물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고대음악에서 현대음악까지 시대와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실험적으로 객석과 무대, 관객과 연주자의 간격을 좁히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협연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 테너 최요섭, 소프라노 김지숙이 함께해 더 풍성한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프로그램

1부 바로크시대

- | | |
|--------------|---------------|
| · G선상의 아리아 |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
| · 사계-봄 | 안토니오 비발디 |
| · 나를 울게 하소서 |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
| · 봄이 오면 | 작사 김동환 작곡 김동진 |
| · 라르고 |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
| · 진주 남강 물수제비 | 작사 김우태 작곡 한정훈 |

2부 로맨틱시대

- | | |
|----------|---------|
| · 심플 심포니 | 벤자민 브리튼 |
|----------|---------|



4월 문화가 있는 날 이혜정 아르떼플라멩코: 사막혼례



4. 29.

수 19:30

대공연장
사전예약에 의한 무료관람
전체관람

아르떼플라멩코가 4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을 찾는다. 스페인 세비야 플라멩코를 사사한 이혜정이 이끄는 아르떼플라멩코는 원색으로 표현되는 강렬한 이미지의 플라멩코 진수를 보여준다. 아르떼플라멩코 팀은 10년 넘게 한국 플라멩코에 수많은 최초를 만들어가며, 작품의 폭과 깊이를 더해왔다. 리더 이혜정은 국내 뮤지컬과 오페라 작품의 안무 감독 및 해외 아티스트와의 작품을 함께하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무용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국내 최고의 플라멩코 뮤지션 기타리스트 황이현, 퍼커션 설호중, 보컬 김지선과 함께 팀을 이뤄, 스페인 전통 플라멩코 형식과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박수(Palmas, 팔마스)와 발구름(Zapateado, 사파테아도) 만으로도 어깨를 들썩이게 되는 플라멩코! 기타와 첼로, 타악기와 노래(Cante, 칸테)까지, 스페인의 자유롭고 열기 넘치는 플라멩코 콘서트를 감상해보자.

시놉시스

성별의 구분이 없는 듯한 혼례복을 입은 남녀는 사막의 모래능선을 버진로드 삼아 건듯 투박한 발걸음을 이어간다. 타악과 현악의 조화는 그 곳에 평생 있었던 듯 무심하지만 안정감 있게 흐르며 선율을 더해가고, 남녀의 걸음과 움직임도 점차 그 안에 스며든다. 시나브로 쌓여진 바람 같던 음악이 고요해지면, 작지만 강한 움직임과 소리의 태동이 무용수에 의해 만들어지고, 고요를 깨는 이 움직임은 점차 생명력을 더해간다. 그 생명들의 결합인 혼례의 의미를 사막의 적요함과 광대함, 그리고 전 우주적 자연스러움을 가진 아름다움에서 찾아본다.

